

LOCAL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신안, 전국 최초 '교통재단' 출범

운항 지연·결항 등 해소...공영여객선 취항
섬지역 주민 교통서비스·삶의 질 개선 목표담양 담빛영화관, 운영 확대
문화 거점 공간 역할 강화

담양군 담빛영화관 운영시간을 확대한
다고 6일 밝혔다.

담빛영화관은 평일 정오부터 오후 9시,
토·일(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운영된다.

지난해 8월 재개관된 '담빛영화관'은
전국 동시개봉 최신영화를 상영해 군민들
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영화관람료는 일반 7000원, 우대 6000
원, 3D 9000원이며, 온라인 예매는 무비
에 (<https://www.movie.co.kr>)에서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발권이 가능하다.

현재 담빛영화관에서는 야당, 마인크래
프트 무비가 절찬 상영 중이고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썬더볼츠 등이 개봉 예
정이다.

정철원 군수는 "담빛영화관은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군
민들에게 여유로운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문화 거점 공간으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신안군이 섬 지역 교통복지 확대와 주
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
통재단'을 설립했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교통재단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 출범식을 개최
했다. 신안교통재단은 전국 최초다.

신안교통재단은 군이 100%를 출연한
기관으로, 민간 선사의 운항시간 지연,
잡은 결항, 시설의 질 등 그동안 불만이
제기돼 오던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
됐다.

또 군 소유의 공용선박을 '신안군 도선
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했지만 전문성과
책임감, 안전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대
두돼 해상교통의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과
편리성을 한 층 더 높은 해상교통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단은 지난 2022년 설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모든 설립 절차를 거쳐 시의면
동리선착장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출범식을 가졌다.

같은 날 남부권역 항로도 취항식을 가



신안군은 최근 전국 최초의 교통재단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출범했다.

졌다.

해당 항로는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했
는 상황이었다.

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운항의 지속

담보할 수 없고,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
는 상황이었다.

군은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하던 여객선

3척을 인수해 공영화했으며, 선명을 천사
1·2·3호로 변경했다.

새 선명으로 취항하는 여객선들의 제원

은 천사 1호는 364t급, 천사 2호 486t급,
천사 3호 720t급이다. 총여객 1027명, 차
량 119대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로, 천사
1·3호는 하의~신의~장산~목포 항로
를, 천사2호는 안좌에서 장산·신의·하의
간을 신설 운항한다.

중간 경유지인 장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는 "장산면은 중간 경유지로 돼 있
어 하의, 신의에서 차량을 싣고 오면 만차
가 돼 장산면에서는 차량을 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심했었는데, 이번에
안좌~장산~신의 간 항로 신설로 너무
반갑고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박종원 신안교통재단 초대 이사장은
"섬에서의 교통은 그 자체로 인권이자 복
지이며 주민들의 삶이기 때문에 다소 예
산이 투입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라며 "남부권 항로 여객선 공영제를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획기
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해남, 쌀값 안정화 지원금 44억 지급

지역농협 11곳·재배농가 5734호 대상...소득 안정 기대

해남군이 2024년산 쌀가격 안정화 및
지지를 위한 '벼 재배 농업인 소득 공동지
원사업' 지원금을 1차로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총 44억4813만원이며, 지
역농협 11개소와 벼 재배농가 5734호에
지급됐다.

벼 재배 농업인 소득 공동지원사업 지
원금은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하락이 지속
됨에 따라 불안정한 시장의 쌀 가격을 견
인하고자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기
금을

을 활용에 마련됐다.

군은 박지원 국회의원과 해남군의회,
지역농협, 농민단체 등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2024년산 쌀값 안정화·가격 지지를
위한 농업인 소득 공동지원 협약을 맺고,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농협이 6만1000원 이상으
로 나락을 전량 수매할 경우 해남군이 농
협에 가마당 2000원을 지원하고, 민간 시
장에 출하한 농가에는 군이 직접 지원금
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1차 지원은 지급 조건을 충족한
농협과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집행됐으
며, 향후 나머지 민간 수매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중 유통 중인 나락 가격은 6만
5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2024년 수확
기 가격인 5만7000원 대비 14% 이상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지원이 쌀값 지
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
된다. 군은 이번 공동지원금 지급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광, 거동불편 어르신 돌봄 강화

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거동불편 어르
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며 지역 어
르신 돌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질
병·부상으로 퇴원, 장기요양판정 대기자
및 등급의자 중 중점돌봄이 필요한 대상
자들에게 지원 중이다. 지난 1분기 총 9명

의 어르신은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가
수월해졌다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한편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
부 사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병원동행서
비스 지원사업,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
경비 지원사업이 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나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원 간담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 모색

나주시는 최근 국립나주수채원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원·간부진
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
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 시정 발
전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
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
됐다.

간담회엔 이상현 나주시장과 한
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
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
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이전공공기관 9곳 임원·간부들이
참석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다양
한 정책 정보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나주알리미 서비스 신청, 마을
간 상생을 위한 1사1촌 자매결연 활성
화를 위한 각 기관의 협조를 건의했
다.

오는 20일 영산강정원에서 열릴 예
정인 전국노래자랑 '나주편', 5월 23
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 둔치체육공
원에서 개최하는 '제21회 영산포 흥어
·한우축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펼쳐질 '2025 나주영산강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과 참여를 요청했다.

을 연말 준공을 앞둔 빛가람동 복합
혁신센터,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며 정주여건 개선
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논의했다.

이상현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중대 현안인 공공기관 2차 이전, 광
주-나주 광역철도 신설, 에너지 전문
과학관 건립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이전공공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
장·발전하는 상생발전 모델을 만들
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



]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